

제2우주센터 육상 공모속 해상 역제안 통할까

제주도, 3km 반경 주민 이주 조건에 해상 발사 제안
“제2우주센터, 제주 우주산업 발전 필요 시설로 판단”
나로우주센터 운용 중인 전남 고흥군과 경쟁 ‘주목’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자치 고흥군이 2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공모한 육상 발사 대신 해상 발사를 역제안한 제주도의 승부수가 통할 지 주목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이 지난 6일 마감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제주도는 육상 발사가 아닌 해상 발사에 기반한 센터 건립으로 고흥군과 경쟁한다.

제주도는 우주항공청이 건립지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발사 지점부터 반경 3km의 안전 영역 확보를

위한 주민 이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미 국방부가 고체 추진 발사체 발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귀포 중문 인근에서 해상 발사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해상에서 발사했을 때 발사각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나오고, 해상 발사의 경우 주민 이주 보상 등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 발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 우주산업 육성에 제2우주센터 건립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육상 발사로 한정해 건립지를 선정하게 되면 제

주는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이같은 역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 지역인 고흥군은 이미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장과 민간전용 발사장, 국가산단, 엔진연소시험시설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고, 이미 구축된 도로·전력·통신·안전관리체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의 유치 의지도 높다. 고흥군은 전남광주특별자치와 공동으로 제2우주센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에 대한

기획 용역도 추진 중이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를 유지하고,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목표까지 세운 상태다.

제주의 경우 도내 시민단체가 해상 발사에 대해 “환경 파괴·군사화 촉진”이라며 우주산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다. 제주도가 공모에는 참여했지만 평가 대상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평가 대상을 우선 결정한다. 이후 발사운용성, 발사 인프라 구축환경, 입지·사회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BS 입시전략설명회… 26일 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26 EBS 입시전략설명회’를 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EBS 소속 대입 전략 전문가인 정제원 대표강사를 초청해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 전략, 전형별 핵심 대비법 등 맞춤형 진학 정보와 함께 변화된 교육 과정에 맞춰 구체적인 합격 전략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 기간은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1시까지, 온라인 링크 (<https://naver.me/xAfWYUgB>) 또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초등학교사 선발 인원 급감 ‘반발’

전교조제주지부 어제 성명
2년 만에 94명→26명으로
도교육청에 적극 대응 촉구

전교조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가 2027학년도 제주 지역 공립 초등학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제주도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2년 만에 72% 이상 감소하면서다.

제주지부는 10일 내놓은 성명에서 “제주에는 도심의 과밀 학교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한다”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 수업이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기회를 잃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최종 선발 계획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제주 교육의 현실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교원 정원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2025년 94명에서 2027년 26명까지 감소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을 향해 ▷최종 임용 계획 발표 전까지 교육

부와 적극 협의해 제주에 필요한 교원 정원 추가 확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와 교육 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별 최소 교원 정원 또는 기초 정원제를 마련하고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기준 정부에 요구 ▷학생 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진행한 협의 내용과 결과를 교사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성읍민속마을 찾은 외국인관광객들 10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설사로부 터 돌하루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희만기자

“체감온도 기준 야외 체험 운영해야”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기자회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이 폭염 속 야외 노동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1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회천분원에서 폭염 속 야외 체험 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가를 내거나 실외 체험 활동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하지만 사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과 같이 야외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근무 장소의 체감 온도 기준으로 야외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폭염 시 실내 전환과 운영 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과 작업 중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전보 압박과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50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생명

가족들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심”

뇌사 상태가 된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다.

10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7월 본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간, 폐, 양쪽 신장을 나누고 떠났다.

A씨는 최근 의식 저하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A씨를 예기치않게 떠나보내야 하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특히 기증된 신장 한쪽은 2015년부터 10년

가까이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이어오며 이식을 기다리던 60대 여성 환자에게 이식됐다. 나머지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 속에서도 쉽지않은 결정을 내려 생명나눔을 실천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의료진 모두가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이식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2026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SINCE 2015

(주)삼다기획
Samda Event Rental



이사 고 대 환

제주시 신광로1길 10, 205호

Fax. 050)4245-7160

Mobile. 010-2603-2789

E-mail. samda2789@daum.net

몽골천막, 캐노피천막, 탁자, 행사용의자 임대
행사기획 및 이벤트 진행
무대, 음향기기 설치 및 임대
현수막, 상패, 행사용품, 책자, 홍보물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렌탈

